

# 『자비도량참법』의 수행체계 연구

—『자비도량참법집해』를 중심으로

김종근

동방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교수

## I. 서론

## II. 본론

1. 참법의 기원과 『자비도량참법』의 전래
2. 『자비도량참법』의 서술구조와 수행체계
  - 1) 서술구조
  - 2) 수행체계
    - (1) 참회수행
    - (2) 자비관수행
    - (3) 오체투지수행

## III. 결론

## 요약문

본 논문은 『자비도량참법』의 서술구조와 수행체계를 연구하여 『자비도량참법』의 서술적 특징과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수행법들을 도출하였다. 『자비도량참법』은 3주설의 체계 속에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내려가면서 참회를 행하고, 또 각 주에 각각의 참회, 즉 오회수행이 행해지는 하향식, 중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참회수행은 단순히 자신의 죄과를 드러내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불공덕을 찬탄하며, 이런 참회와 찬탄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더불어 나누고, 발원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확립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오회의 전 과정을 통합한 수행으로 확인되었다. 또 『자비도량참법』은 특히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한 자비관수행과, 멸업의 가피를 내려주는 불보살들인 35불, 53불 등에 대한 신앙과 이들에 대한 오체투지의 수행법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 주제어

자비도량참법, 자비도량참법집해, 참법, 참회, 자비관, 오체투지

## I. 서론

참법이란 참회의 의례를 말하는 것인데, 불교 수행이 탐진치 3업의 멸제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이는 수행의 방편이기도 하다. 『慈悲道場懺法』은 중국에서 나타난 최초의 참법문헌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자비도량참법』의 서술구조와 수행체계를 논구함으로서 『자비도량참법』의 서술적 특징과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수행법들을 도출하려 한다. 이 논구과정에서 여말선초의 천태종 승려로 『慈悲道場懺法集解』(이후 『집해』)를 쓴 조구(祖丘)의 주석을 활용한다. 『집해』는 현존 유일의 『자비도량참법』의 주석으로서 산실된 이전의 주석서들을 포괄적으로 인용하며, 단지 인용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고증과 논증을 행하여 여말선초 불교학계의 역량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

『자비도량참법』은 남권희의 상세한 문헌적 연구<sup>1)</sup>가 있지만, 본론 서술을 위해 간단한 내용을 부기한다. 『자비도량참법』은 양무제대에 여러 승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원나라 때 내용을 대교하여 정리해서 이후 ‘상교정본(祥校正本)’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었다. 『대정신수대장경』 45권<sup>2)</sup>에 수록된 것은 구본이기에 『자비도량참법』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다. 『한국불교전서』 12책<sup>3)</sup>에 수록된 『자비도량참법』의 텍스트는 조선조 김수온의 발문이 포함된 국립도서관 소장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에 남권희 소장본 『자비도량참법집해』가 나뉘어 실려 있다. 그래서 이 두 텍스트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4)</sup> 『한국불교전서』 12책에 실려 있는 텍스트가 2011년 성재현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어 동국대출판부에서 출판되었다. 본 논문이 사용하는 『자비도량참문』과 『집해』의 텍스트는 『한국불교전서』에 실린 텍스트와 성재현의 번역본이다.

기존의 『자비도량참법』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집해』에 나타난 고려시대 미수(彌授)의 유식사상을 고찰한 이만의 「고려미수의 유식사상」<sup>5)</sup>이 있고, 문헌학적인 고찰로는 남권희의 다수의 연구<sup>6)</sup>가 있다.

1) 남 권희, 「홍덕사자로 찍은 『자비도량참법집해』의 복각본에 관한 연구」, 『고인쇄문화』 2호,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1993), pp. 5-86.

2) 『慈悲道場懺法』(『大正藏』 45, 922-967)

3) 『慈悲道場懺法』(『韓佛全』 12, 45-155.)

4) 예를 들어 『大正藏』의 『자비도량참문』 1권의 서두는 “미륵세존”으로 시작하지만, 『韓佛全』의 경우는 “미륵여래응정등각”으로 시작하는 등이다. 또 체제에서 『大正藏』의 『자비도량참문』은 「자비도량참법전」을 실고 있지만, 『韓佛全』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대신 강전의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서」를 실고 있다.

5) 이 만, 「고려미수의 유식사상」, 『한국불교학』 20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1995), pp. 369-391.

6) 특히 남 권희, 「홍덕사자로 찍은 『자비도량참법집해』의 복각본에 관한 연구」, 『고인쇄문화』 2호,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1993), pp. 5-86.가 가장 종합적인 연구이다.

석사학위논문 중에 『자비도량참법』을 중심으로 불교의 참회사상을 연구한 이문복(현문스님)의 연구<sup>7)</sup>가 있다.

참법은 다양한 수행법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수행자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인간상을 확립하는 종합적 수행체계로서 이 연구는 향후 불교수행법의 프로그램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본론

### 1. 참법의 기원과 『자비도량참법』의 전래

『집해』에서는 참법에 대해 “참은 범어의 약칭이다. 온전히 말하면 참마(懺摩, kṣama)로서 중국말로는 회왕(悔往)이며, 지난날의 잘못과 근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범은 법칙을 말하니 법도를 유지하라는 뜻이다.”<sup>8)</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참범이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일정한 법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鹽入良道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참법의 성립을 생각할 때 참법의 내용과 성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참법에는 유사한 것들, 예를 들어 참의, 예참, 예참의 등을 비롯하여 회과, 참회의 참마, 참회법등과 같은 표현도 있고, 또 문자 그대로 참회

7) 이 문복, 「불교의 참회사상연구」, (서울: 동국대 교육대학원 종교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8) 조구 저, 성 제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 51.

의 범이라 본다면 율에 있어서 apatti-pratidesāna 같이 포살이나 자자시에 행해지는 참회, 참법도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승경전에서 많이 논해진 예불참회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그리고 kṣana와 deśana 등의 번역어 구별도 연구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일단 ‘여러 경전의 說에 의해 죄과를 참회하는 의례 및 그 의칙’이라 본다.<sup>9)</sup>

이에 비해 예참이나 예참의는 참회의 한 범도로서 불보살에게 경례(敬禮)를 올리면서 참회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참법을 예참에 비해 외연을 넓게 가진 용어로서 사용한다.

이런 참법의 전통은 초기불교의 자자와 포살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는 참법의 기원은 중국 남북조의 양무제 시대(재위 AD 502-549)로 잡을 수 있다. 그것은 『자비도량참법』을 비롯한 참법 문헌들이 양무제 이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후로 수나라 지의의 『법화삼매참의』, 『금광명참법』, 『방등참법』 등과 당나라 종필의 『원각경도량수증의』, 송나라 지예의 『금광명최승참의』를 포함하여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대를 거쳐 다양한 참법문헌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광홍명집』 권 28의 회죄(悔罪)편<sup>10)</sup>에는 참회문으로 양무제의 『마하반야참문』, 『금강반야참문』, 간문제의 『열반참문』, 『육근참문』, 『회고만문』, 심약의 『참회문』 등등이 나타난다.

이 시대에 이렇게 참법이나 참회문 등이 나타난 이유로는 중국불교 특유의 응보신앙과 남북조 시대의 어지러운 정치사회상에 원인이 있

9) 鹽入良道, 「懺法の成立と智顛の立場」, 『印度學佛教學研究』, 17卷 2號(通卷 14號),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1959), p. 45.

10) 『廣弘明集』(『大正藏』52, 321c)

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남북조 당시에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많은 반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양무제의 경우 남제의 동혼후를 살해하고 황제에 올랐으나 훗날 동혼후가 죽은 날 태어난 후경의 반란에 의해 양무제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속설이 있다.<sup>11)</sup> 또한 『慈悲道場懺法傳』은 『자비도량참법』의 간행 연기로 양무제의 황후인 치씨가 성격이 질투가 많고 모질어 많은 죄를 지어 후신으로 구령이가 되어 양무제에게 나타남으로, 양무제가 황후의 멸업을 위해 간행하였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sup>12)</sup>

이런 내용을 볼 때 당시 남북조의 지배자들 사이, 혹은 최소한 양무제는 황위쟁탈의 과정에서 저지른 수많은 악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고, 이를 참법의 수행을 통해 멸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황위찬탈의 과정에서 동일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나 특히 양무제대에 이르러 이런 참법과 참회문이 나타난 것은 남북조 시대가 불교가 기존의 중국 사상과 융합하던 토착화시기를 맞이하여 불교의 응보사상이 일정한 신앙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런 면에서 참법문헌의 간행은 불교수행의 중국적 토착화의 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참법문헌의 발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중국불교의 응보신앙은 당나라 시대에 업사상, 삼세양중인과사상과 혼합하여 일반 서

민들의 가장에도 깊이 침투하여 사회윤리적인 목적 및 현세 이익의 목적과 결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우리나라의 『자비도량참법』 수용 역시 중국 남북조의 참법문헌의 성립배경과 같이 죄과를 참회하는 공덕으로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중국불교의 태도와 유사했을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우리나라의 참법수행의 전통은 신라 시대 점찰법의 수행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찰수행은 설주가 지장보살이기 때문에 『지장보살업보경』이라고도 불리는 『점찰선악업보경』(2권)(줄여서 『점찰경』으로 표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현세 길흉의 원인을 점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참회하는 수행이다. 진평왕(재위 AD. 579-632)대에 원광법사가 점찰보를 만들어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점찰수행자는 진표율사(8세기 중후반)이다. 『점찰경』은 설주인 지장보살이 현세의 고락길흉등을 3종의 목륜상으로 점찰하여, 악업중생은 선정수행 이전에 참회법을 닦아야한다고 강조하며, 대승으로 향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일실경계에 의지하여 신해를 닦아야 한다는 대승실의를 밝히고 있다.<sup>15)</sup> 점찰참법수행은 이런 내용을 통해 이참과 사참을 행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는 수행이다.

『자비도량참법』에 의한 자비참은 고려 예종(재위 AD. 1106-1122)

11) 차 차석, 『중국의 불교문화』, (서울: 운주사, 2007), p. 224.

12) 『慈悲道場懺法傳』(『大正藏』 45, 922b). 『집해』는 “『梁書』에 기재되지 않았고, 釋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그 일은 이미 허구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치상 삭제해야 마땅하기에 다시 기록하지 않는다”(조구 저, 성 제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p. 47-48.)는 광균(廣鈞)의 의견을 기재하면서 이 전을 수록하지 않았다.

13) 차 차석, 『중국의 불교문화』, (서울: 운주사, 2007), p. 225. 참조.

14) 효탄 역시 “미수에 의해 『자비도량참법』이 찬술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말 토착적 신비사조의 흐름에 민중불교, 지방중심의 불교로서의 경향과 미수를 정점으로 하는 참회사상의 혼합으로 경전의 주송, 예참과 참회를 통하여, 除災, 招福, 治病, 延壽 등의 현세 이익을 기원하는 일반 민중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숙(효탄), 「고려시대 법상종의 참법수행」, 『불교학 연구』 제4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2), p. 121.

15) 효탄, 「참법수행의 전통과 계승」상, 『운문』 102호, (청도: 운문승가대, 2006), pp. 7-8.

원년(1106) 10월에 왕이 친히 문덕전에 자비참도량을 설치하여 시행되었다고 한다.<sup>16)</sup> 『자비도량참법』의 문헌 전래는 남권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자비도량참법』의 개판사업이 기록상 북송의 태평흥국 연간(AD. 976-983)에 시작되어 송의 경덕연간(AD. 1004-1007)에도 있었으며 서하문으로 번역된 것이 1068-1086년이고 보면 그 전파의 속도도 매우 빨랐으며 또 서하문 『자비도량참법』의 변상도나 체제가 계명대학교 소장인 원대의 상교심정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과 거의 유사함을 볼 때 고려로의 전파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sup>17)</sup>라고 한다. 현존 우리나라 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충렬왕 8년(1282) 이덕손의 발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sup>18)</sup>

주석서에 관해서는 『집해』에 따르면, “지난날 은릉의 전교사문 변진(辯眞)스님이 주를 찬하여 그 의미를 소통시킨 적이 있었고, 청량산의 광균(廣鈞)스님이 자세히 교정한 후에 저술한 『사초』 3권, 우바새인 여남의 각명(覺明)공이 저술한 주석, 우리나라 자은종의 스님이신 국인 미수대사의 『述解』, 선가의 철장이신 동림(東林)스님의 『略解』가 있다.”<sup>19)</sup>고 한다. 그러나 미수의 『술해』나 동림의 『약해』는 전하지 않고 조구의 『집해』에만 여러 번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는 실전되었지만 『집해』에 100여회 이상 인용된 『술해』의 저자

미수(1240-1327)는 법상종의 유식학자로서 고려 충숙왕 때 참회부를 설치하여 승정을 전담했다는 내용을 볼 때 참회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집해』의 저자 조구(1310?-1395)는 『조선왕조실록』에 단편적으로 나타날 뿐 자세한 행적을 알 수 없지만, 여말선초의 천태종 승려로서 태조 3년(1394)에 국사로 책봉되었다고 한다.<sup>20)</sup> 그가 『집해』를 저술한 시기는 1377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sup>21)</sup>

효탄(김창숙)에 의하면 “『점찰경』과 『자비도량참법』의 내용과 형식을 볼 때 자비참의 미륵의 큰 자비를 내세우고 정돈되고 합리적인 수행법이 신비적이고 점술적인 점찰법보다 호응을 더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또 『자비도량참법』 10권의 안근, 이근, 비근 등의 발원과 연관하여 『능엄경』의 6근신통과 당시의 선사상과의 연관성도 추측해볼 수 있다고 한다.<sup>22)</sup>

## 2. 『자비도량참법』의 서술 구조와 수행체계

### 1) 서술 구조

『자비도량참문』의 전체 구성에 대해 『집해』 3권에 변진이 실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6) 김 창숙(효탄), 「고려시대 법상종의 참법수행」, 『불교학 연구』 제4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2), p. 119. 재인용.

17) 남 권희, 「홍덕사자로 찍은 『자비도량참법집해』의 복각본에 관한 연구」, 『고인쇄문화』 2호,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1993), pp. 49-50.

18) 효탄, 「고려시대 법상종의 참법수행」, 『불교학 연구』 제4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2), p. 119.

19) 조구 저, 성 재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p. 28-29.

20) 김 창숙(효탄), 「고려시대 법상종의 참법수행」, 『불교학 연구』 제4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2), p. 117. 재인용.

21) 남 권희, 「홍덕사자로 찍은 『자비도량참법집해』의 복각본에 관한 연구」, 『고인쇄문화』 2호,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1993), pp. 76-78.

22) 김 창숙(효탄), 「고려시대 법상종의 참법수행」, 『불교학 연구』 제4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2), p. 121.

“지금 10축의 전체적 구성을 살펴보면 세 단락의 뜻이 있다. 앞의 두 권은 참회와 행원을 주로 밝힌 것으로서 문장과 그 뜻이 오히려 간략하니, 곧 상근기를 위한 것이다. 다음 네권은 과보를 드러내고 원결을 푸는 것을 아울러 밝힌 것으로 약간 자세하니, 곧 중근기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뒤의 네권은 自慶, 禮佛, 行門을 총괄해 보인 것으로 더욱 자세하니 곧 하근기를 위한 것이다. …… 『법화경』의 삼주설법(三周說法)과 비슷한 점이 있다.”<sup>23)</sup>

삼주설이란 천태종의 이론으로 중생을 근기별로 상중하로 나눈 것이다. 『자비도량참문』 전 10권중 1-2권은 1주로서 상근기를 위해서, 3-6권은 2주로서 중근기를 위해서, 7-10권은 3주로서 하근기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큰 틀 속에서 1주에는 주로 참회와 행원, 2주에는 과보와 해원, 3주에는 자경, 예불, 행문이 다시 세분되어 있다. 편의를 위해 도표를 제시한다.

도표1) 『자비도량참문』의 구성과 내용

3주설	『자비도량참문』의 권수	근기	구체적인 수행 내용
1주	1-2	상근기	1. 삼보에 귀의함 2. 의심을 끊음 3. 참회 4. 보리심을 일으킴 5. 원을 세움 6. 회향하는 마음을 일으킴
2주	3-6	중근기	1. 과보를 드러냄 2. 지옥을 벗어나 3. 맺힌 원함을 풀 4. 발원
3주	7-10	하근기	1. 스스로를 축하함(自慶) 2. 육도를 위한 예불 3. 회향 4. 발원(6근의 원을 일으킴) 5. 축루 <sup>24)</sup>

23) 조구 지, 성 재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 227.

24) 조구 지, 성 재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 666. “축루(囑累)에 대해 미수스님은 ‘축은 부탁을 말하고 누는 곧 단단히 묶는 것이다. 보호하고 유지시켜 널리 유포하도록 그들에게 거듭 단단히 부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일종의 유통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각각의 주에 나타나는 수행내용은 용어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오회(五悔)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오회<sup>25)</sup>는 동한 시대에 번역된 『사리불회과경』에서 예불, 참회, 권청, 수회, 회시(回施)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양대에 번역된 『보살오법참회문』에는 참회, 청불, 수회, 회향, 발원의 참회 방법이 나타난다. 지의 대사는 육근참회, 권청, 수회, 회향, 발원의 오회사상을 확립하였다. 『국청백록』은 “이 법은 바로 용수의 『비바사론』에 의거하고 그와 함께 여러 경전들의 뜻을 더한다.”<sup>26)</sup>라고 하여 오회가 대승불교의 참회수행법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자비도량참문』은 대승의 참회수행법인 오회가 각 근기에 맞추어 간략한 형태에서 뒤로 갈수록 자세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1주에서 간략히 행해졌던 참회가 2주와 3주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수행을 함으로써 반복적인 참회수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 2) 수행체계

### (1) 참회

『자비도량참법』은 참회수행법을 위한 의례서이기 때문에 참회수행이 그 수행체계의 근본이 된다. 불교의 응보사상은 중국 민중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 전래의 응보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sup>27)</sup> 윤회사상과 연결된 불교의 응보사상은 악업에 의한 후생의 과보라는

25) 이하 오회사상에 대한 내용은 양 정연, 「종카과의 참회사상 고찰」, 『한국선학』 23호, (서울: 한국선학회, 2009), pp. 598-599. 참조.

26) 『國清百錄』(『大正藏』46, 794a)

27) 차 차석, 『중국의 불교문화』, (서울: 운주사, 2007), pp. 220-221. 참조.

관념을 통해 중국 민중의 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중국을 이룬 시기부터 지옥에 관한 경전들이 많이 번역되었고, 지옥이나 정토의 변상도, 영험기, 왕생전 등의 문헌들의 출현은 중국 민중들의 마음에 악업에 대한 자각과 참회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웠을 것이다. 이런 점이 『자비도량참법』의 성립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에 참법 문헌들의 성립을 토착적 중국불교의 한 특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회에 대해 『집해』는 다양한 인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보현행원 품별행소초』의 내용을 들어 “참은 앞서 저지른 죄를 드러내 진술하는 것이고, 회는 지나간 일을 개선하여 다가올 일을 닦는 것이다”<sup>28)</sup>라고 한다. 또 『집해』는 “참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말하자면 참회, 권청, 수회, 회향, 발원이다. 이 다섯가지 법을 다 참이라 한다. 처음 참회는 이미 해석했고, 나머지는 왜 참이라고 하는가. ……범어로는 참마이고 중국말로 회과(悔過)인데, 이미 과오를 뉘우쳤다면 다가올 일을 닦고 행하고, 청하고, 발원하는 일들을 할 것이니 모두 참이라 한다.”<sup>29)</sup> 이를 통해 『집해』는 참회를 회회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회는 자기 방어기제가 강하면, 즉 아집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참회는 진정한 자기 모습을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돌아볼 때 비로소 일어나는 자연발생적 현상일 것이다. 참법수행은 이러한 통절한 자기반성을 불러오기 위한 인위적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참문의 독송을 근본으로 하여 산화(散花), 자비관, 오체투지의 예배 등의 여타의 다른 보조적 행법들의 조화를 통해 이런 반

성을 불러 일으켜 감정적 정화를 이룬 후 발원의 결심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내는 것이 참법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참회의 과정에서 발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발원의 중요성을 『집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회) 이 가운데 발원을 뒤에 둔 이유는 발원이 없으면 일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원을 일으켜 앞의 네 가지 일을 이끌어야 하니, 『화엄경』에는 ‘만약 발원이 없다면 닦았던 온갖 행이 모조리 마귀의 업이 된다’고 하였다.”<sup>30)</sup>

참회는 이와 같이 단순히 과거의 죄과를 반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과의 과정에서 불보살의 덕을 찬탄하고, 그 회과와 찬탄의 공덕을 중생과 더불어 나누며,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새로운 자아상을 정립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참회는 기독교의 회개(悔改)의 개념과도 대조될 수 있을 것이다. 『자비도량참법』은 이런 참회의 과정을 참문의 독송을 위주로 하여 다음에 보게 될 자비관과 오체투지의 예배수행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적인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 (2) 자비관수행

『자비도량참문』은 그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미륵신앙을 위주로 한 자비사상이 핵심으로 나타난다. 『집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8) 조구 저, 성 재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 52.

29) 조구 저, 성 재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 54.

30) 조구 저, 성 재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 54.

“각명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때번 불명을 청할 때 마다 모두 앞애다 미특을 표명하고 뒤에 관음을 나열한 것은 미특께서 가지하여 꿈에 제목을 지시했기 때문이고 ..... 또 이 참법은 본래 자비를 종지로 삼는데, 미특께서는 세세생생 자비를 닦아 그것에 기인해 성씨를 삼은 분이기 때문이다.’<sup>31)</sup>”

중국에서 미특신앙은 남북조시기에 미타신앙을 능가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를 차차석은 중국민중의 종교 심리는 범신론적이라 미타신앙과 미특신앙을 구분하지 않았고, 둘째로 미타정도보다 미특정도가 더욱 가기 쉬운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셋째로 미타신앙의 정토삼부경의 관상법은 이성적인 깨달음을 요구하지만 미특상하생경은 조상, 조탑, 예배, 염송 등의 쉬운 방법을 강조했으며, 넷째 서역에서 유행하던 소승 미특신앙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한다.<sup>32)</sup> 이와 같은 남북조 시기의 미특신앙이 『자비도량참문』의 성립과 수행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자비도량참문』에 나타나는 자비관의 형태는 남방 상좌부의 『청정도론』과 『무애해도(Patisambhidamagga)』에 나타나는 형태와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비도량참법』 2권 「발보리십제4」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보리십을 발할 때는 반드시 먼저 인연을 맺은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반

연하여 생각(想)을 일으켜야 합니다. 생각을 둘 때에 자기의 부모님과 스승과 권속을 생각하고, 또 지옥, 아귀, 축생을 생각하고, 또 모든 하늘과 모든 신선과 일체 신신들을 생각하고, 또 모든 하늘들과 모든 신선과 일체 신신을 생각하고, 또 인간세계의 일체 인류를 생각하여 고통을 겪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살피고 나서 생각을 짓고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하나니, 오직 큰 마음이 있어야만 그들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완성되었으면 두 가지 생각을 일으켜야하고, ..... 한 집안을 가득 채우는 생각을 일으켜야합니다. .... 염부제를 가득 채운 다음에는 나머지 삼천하를 가득 채워야하고,..... 동방세계의 중생을 다 자신의 아버지로 보고, 서방세계의 중생을 다 자신의 어머니로 보고 ..... 그 나머지 사유의 중생을 다 사문과 바라문 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고통을 받을 때 내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찾아가리라. 그들의 몸을 쓰다듬어 주고 맹세코 그 고통을 뿌리채 뽑아주리라. ....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여 부처님을 찬탄하고 보살대중을 찬탄하리라. 그렇게 찬탄한 다음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내가 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리라.’<sup>33)</sup>”

이 내용을 분석한다면 먼저 인연을 맺은 가까운 사람부터 점점 관계를 넓혀 나가 부모, 스승, 권속, 6도의 일체 중생의 순서로 구제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한 가지 생각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집

31) 조구 저, 성 재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 107.

32) 차 차석, 『중국의 불교문화』, (서울: 운주사, 2007), p. 206.

33) 조구 저, 성 재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 163.

안과 1유순, 염부제, 시방세계의 공간적 넓이의 순서로 생각을 넓혀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생각이란 자비를 말하는 것이다. 또 동서남북 상하사유의 방위적 관점에서 중생들에 대한 자비를 넓혀가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런데 남방상좌부의 『무애해도』에는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자비심을 방사하는 내용이 나타난다.<sup>34)</sup> 그것이 첫째 포괄적 방사(anodhiso-pharaṇā)의 자비관, 둘째 한정적 방사(odhiso-pharaṇā)의 자비관, 마지막으로 방향별 방사(disā-pharaṇā)의 자비관이다. 그 중에서 포괄적 방사의 자비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디 모든 중생들이 원한이 없기를. / 부디 모든 중생들이 악의가 없기를. / 부디 모든 중생들이 근심이 없기를. / 부디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2. 부디 모든 생명들이 원한이 없기를. / 부디 모든 생명들이 악의가 없기를. / 부디 모든 생명들이 근심이 없기를. / 부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3. 부디 모든 존재들이 원한이 없기를. / 부디 모든 존재들이 악의가 없기를. / 부디 모든 존재들이 근심이 없기를. / 부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4. 부디 모든 사람들이 원한이 없기를. / 부디 모든 사람들이 악의가 없기를. / 부디 모든 사람들이 근심이 없기를. / 부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34) 『정정도론』의 내용은 붓다 교사 저, 대림 역, 『정정도론』 제 2권,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2004), pp. 160-166. 참조할 것.

살기를.

5. 부디 몸을 가진 모든 자들이 원한이 없기를. / 부디 몸을 가진 모든 자들이 악의가 없기를. / 부디 몸을 가진 모든 자들이 근심이 없기를. / 부디 몸을 가진 모든 자들이 행복하게 살기를.<sup>35)</sup>

이 구절은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이란 정형구의 내용을 중생, 생명, 존재, 사람, 몸을 가진 자라는 포괄적 대상에게 방사하기 때문에 포괄적 방사의 자비관으로 불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정적 방사의 자비관은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이란 정형구의 내용을 여성, 남성, 성인, 범인, 천신, 인간, 악도중생이라는 한정적 범주에 방사하기 때문에 한정적 방사로 불린다. 이 한정적 방사의 자비관은 먼저 인연을 맺은 가까운 사람부터 점점 관계를 넓혀 나가 부모, 스승, 권속, 6도의 일체 중생의 순서로 나아가는 『자비도량참법』의 자비관형태와 거의 유사하다. 『무애해도』의 경우 남과 여, 범인과 천인, 천계, 인간계, 악도, 즉 육도라는 서로 상대되는 범주이고, 『자비도량참법』은 나에서 시작해서 육도의 중생으로 넓혀간다는 관계의 확대라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를 통해 육도의 일체 중생에게 자비심이 미친다는 점에서는 거의 동일한 행법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방향별 방사의 자비관은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이란 정형구의 내용을 동방, 서방, 북방, 남방,

35) 임 승택, 『빠띠삼비다막가역주』,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1), p. 740.

동북방, 서남방, 서북방, 동남방, 하방, 상방의十方세계로 방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것은 동서남북상하사유의 방위적 관점에서 중생들에 대한 자비를 넓혀가고 있는 『자비도량참법』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

원래 자비관을 비롯한 사무량심의 수행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서 시작해서 모든 방향별로 전 우주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초기불교부터의 행법<sup>36)</sup>이었고, 이는 남방상좌부의 『무에해도』나 『정정도론』에도 나타나 있으며, 대승의 사무량심 수행<sup>37)</sup>에도 계승되었으며, 이런 대승의 자비관 행법이 『자비도량참법』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자비도량참법』 2권의 인용문 내용은 관법의 행법이지만, 이 내용은 『자비도량참법』 7권에서 9권에 이르는 「육도를 위한 예불」 부분에 확장되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앞서 본 논문에서 밝혔듯이 『자비도량참법』의 구조는 3주설의 형태로 1권과 2권의 내용은 상근기를 위한 내용이라면 7권 이후는 하근기를 위한 것으로 2권에 나타난 자비관의 관법적 형태는 7권 이후의 하근기를 위한 참회 부분에서 전체문헌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 『자비도량참법』에서 차지하는 자비관의 위치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 (3) 오체투지수행

『자비도량참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가 오체투지이

36) 초기불교의 자애관과 자애관의 정형구에 대하여는 일중, 「남방 상좌불교전통에서의 자애관 수행」, 『구산논집』 제 9집, (서울: 구산장학회, 2004), pp. 107-108. 참조할 것.

37) 『大智度論』 卷20(『大正藏』 25, 209a) “是四無量心云何行 答曰 如佛處處經中說 有比丘以慈相應心 無恚無恨 無怨無惱 廣大無量 善修 慈心得解遍滿東方世界眾生 慈心得解遍滿南西北方 四維上下十方世界眾生 以悲喜捨相應心 亦如是”

다. 『자비도량참법』을 구성하는 매 단락의 끝에는 삼보나 불명호와 더불어 오체투지가 행해진다. 원래 오체투지는 수행법이라기보다는 예경법인데 이와 같은 사회적 행위가 하나의 수행법으로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예경을 통해 자신을 낮추는 하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심은 업장으로 이루어진 자신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예경의 한 방법인 오체투지가 업장참회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특히 멸업장의 특징을 가진 불보살에게 예배함으로써 불보살의 가피를 통한 업장소멸이라는 신앙적 측면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특히 예참이라는 단어를 예배를 통한 참회법으로 생각하고 참법이라는 단어에 비해 작은 범위를 가진 단어로 이미 정의했다. 예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불명호를 칭명하는 것도, 단지 합장이나 호뢰좌만을 취하는 것도, 꽃을 뿌리고 향을 올리는 일도 예참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오체투지의 예배(禮拜)를 가장 대표적인 예참법으로 보는 것은 자신의 가장 높은 부위에 있는 머리를 조아려 타인의 가장 낮은 발에 둔다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가장 극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지도론』에는 “하의 절은 읊(합장)하는 것이요, 중의 절은 꿇어앉는 것이며, 상의 절은 머리를 숙여 발에 절하는 것이니 이것이 최상의 공양이다.”<sup>38)</sup> 라고 한다.

『자비도량참법』을 실수한 사람들이 헤아린 바로는 오체투지의 총수

38) 『大智度論』 卷10(『大正藏』 25, 130c) “下者揖 中者跪 上者稽首頭面禮足 是上供養”

가 1,808회라고 하지만,<sup>39)</sup> 한국불교전서에 실린 『자비도량참법』이나 산수대장경에 실린 구본의 내용에 따라 해야 된다면 이와 같은 횃수가 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의 실수행자들은 각 불명마다 오체투지를 하지만 『한국불교전서』나 산수대장경에는 여러 불명이 나열된 후 마지막에만 “(一拜)”라고 부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닐까한다. 아마도 오체투지의 횃수는 실수행시의 형편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체투지가 본질적인 멸업참회의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횃수보다는 하심의 정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하심이 없는 형식적 예배에 대해 『법원주립』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sup>40)</sup>

“요즘 승속들을 보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들을 때도 비록 몸으로는 따라 예배하나 마음은 바깥 경계를 반영하여 중도에서 미끄러지더라도 조금도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으며 ..... 마음은 공경히 생각지 않으며 마치 군인의 점호 같아서 다만 빈 이름만 기억한다. 이것은 방아가 오르내리는 것 같아서 한갓 수고로울 뿐이요. 이익은 없다.”<sup>41)</sup>

이와 같이 오체투지는 단순히 육체의 굴신이 아니라 하심과 인욕의 정신 등이 같이 할 때 비로소 멸업참회의 수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체투지를 할 때는 예배자와 예배받는 대상이 둘이 아닌 점을 깊이 명상해야 한다. 이런 관법을 통해 오체투지는 이참의 훌륭한 방편이

39) 한 정덕행, <<자비도량참법을 마치고>>, 『신행불교』 147호, (서울: 정각사신행회, 1981), p. 23.

40) 『집해』에는 특별히 오체투지에 대한 주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전들을 인용한다.

41) 『法苑珠林』(『大正藏』 53, 430a).

된다. 이에 대해 『관음참법주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예불의 정신은 능례하는 참회자와 소례자인 관세음보살의 체성이 모두 본래 공적하여 중생의 감(感)함과 성현의 응(應)함이 도(道)로서 교류하는 참으로 사유하기 어려운 경계이다. 나와 참회하는 이 도량은 마치 체석천의 인드라마의 한 보주와 같아 관세음보살이 무수히 창현하는 가운데 나의 몸도 또한 관세음보살 전에 창현하여 두면접촉으로 지심귀명례하는 것이다.”<sup>42)</sup>

또 오체투지는 멸업장의 심리적 수행이면서, 멸업장의 가피를 바라는 신앙의 형태로도 행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오체투지의 예배 대상이 되는 과거 7불, 35불, 53불, 170불이 『자비도량참문』의 1주(1권에서 2권)에 나타난다. 『집해』는 1주에 나타나는 불보살들의 소속만을 밝혔고 그 이후 권들에 나타나는 불보살들의 소속은 설명이 없다.

35불은 오역죄를 저지른 자가 죄를 참회할 때 귀의하는 대상이다. 이 35불의 명칭은 『불설결정비니경』, 『대보적경』에 나타난다. 53불은 칭명하면 태어나는 곳마다 시방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사중죄, 오역죄가 깨끗이 없어진다고 하는 불명호이다.<sup>43)</sup> 이런 점에서 제 1주에 나타나는 불보살들은 멸업장과 관련있는 불보살들의 명호로 보인다.

과거불, 미래불신앙이나 35불, 53불, 천불, 만불 등의 신앙은 중국

42) 『觀音懺法註疏』(『大正藏』 46, 969b).

43) 조구 저, 성 재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 132; 176; 194.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찾아 볼 수 있다. 53불신앙만을 예를 든다면 유점사의 53불 도래설화, 신라 안흥사의 53종 회불(繪佛), 고려 료세(AD. 1163-1245)의 53불 예참에 관한 자료가 있다. 료세는 주석하던 약사난야(藥師蘭若)에서 하루 53불에 열 두번씩 절하여 매일 636배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속성을 따라서 서참회(徐懺悔)라 불렀다는 내용이 『동문선』<sup>44)</sup>에 전해진다. 이런 점에서 특히 멸업장의 가피를 내리는 과거칠불이나 35불, 53불 등의 불보살신앙이 『자비도량참법』의 참회수행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요소로 보인다.

### III. 결론

지금까지의 논술을 통해 『자비도량참법』은 3주설의 체계 속에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내려가면서 반복적으로 참회를 행하고, 또 각 주에 각각의 참회, 즉 오회수행이 행해지는 하향식, 중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였다. 참회수행은 단순히 자신의 죄과를 드러내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불공덕을 찬탄하며, 이런 참회와 찬탄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더불어 나누고, 발원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확립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오회의 전 과정을 통합한 수행이다.

이 과정에서 『자비도량참법』은 특히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한 자비

관수행과 멸업의 가피를 내려주는 불보살들인 35불, 53불 등에 대한 신앙과 이들에 대한 오체투지의 수행법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남북조의 양나라대의 참법문헌들과 그 의례 및 수행들은 불교의 응보사상에 대한 중국적 표현으로서 멸업과 이를 통한 현생과 내생의 기복이라는 중국 민중들의 필요성이 수행과 연관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기복이 단지 개인적 복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버려져야 할 것이지만, 물질적 복이 아니라 지혜에 의한 행복에서 발생하는 복이라면 기복은 곧 지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참법수행은 과보에 대한 공포에서 발생한 중생의 기복하는 마음을 지혜의 기복으로 돌리는 훌륭한 수행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시 점찰법과 다양한 참법수행의 전통들이 있어 왔고 이는 중국과 다르지 않게 민중들의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전통을 단지 기복이라는 점에서 백안시할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 변용된 수행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도를 구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 밝혔듯이 『자비도량참법』은 참회수행과 자비관, 그리고 오체투지의 예배수행이 유기적으로 잘 조화된 수행의례서이다. 근년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108배가 건강법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차제에 단순히 굴신운동으로서의 오체투지가 아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신성이 가미된 108배 수행이 만들어 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럴 때 『자비도량참법』을 포함한 참법의 수행체계는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된다.

44) 김 영태, 「현존사료를 통해 본 53불 신앙」, 『경해법인 신정오박사 화갑기념 불교사상논총』, (서울: 하산출판사, 1991), p. 72. 재인용.

## 참고문헌

- 『觀音懺法註疏』(『大正藏』 46).
- 『國清百錄』(『大正藏』 46).
- 『廣弘明集』(『大正藏』 52).
- 『大智度論』(『大正藏』 25).
- 『法苑珠林』(『大正藏』 53).
- 『慈悲道場懺法』(『大正藏』 45).
- 『慈悲道場懺法集解』(『韓佛全』 12); 아래의 조구(2011).
- 『빠띠삼비다막가』; 아래의 임 승택(2001).
- 『청정도론』; 아래의 붓다 고사(2004)
  
- 김 영태(1991). 「현존사료를 통해 본 53불 신앙」, 『경혜법인 신정오박사 화갑기념 불교사상논총』, 서울: 하산출판사.
- 남 권희(1993). 「홍덕사자로 찍은 『자비도량참법집해』의 복각분에 관한 연구」, 『고인쇄문화』 2호,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pp. 5-86.
- 붓다 고사(2004). 『청정도론』 제 2권, 서울: 초기불전연구원.
- 양 정연(2009). 「종카파의 참회 사상 고찰」, 『한국선학』 23호. 서울: 한국선학회. pp. 591-621.
- 이 만(1995). 「고려미수의 유식사상」, 『한국불교학』 20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pp. 369-391.
- 이 문복(2000). 『불교의 참회사상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 종교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 승택(2001). 『빠띠삼비다막가역주』,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조 구(2011). 성재현 역, 『자비도량참법집해』,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차 차석(2007). 『중국의 불교문화』, 서울: 운주사.
- 한 정덕행(1981). 「자비도량참법을 마치고」, 『신행불교』, 147호., 서울: 정각사신행회.
- 효탄(2002). 「고려시대 범상종의 참법수행」, 『불교학 연구』 제4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pp. 109-123.
- 효탄(2006). 「참법수행의 전통과 계승」상, 『운문』 102호. 청도: 운문승가대. pp. 6-9.
- 효탄(2007). 「참법수행의 전통과 계승」하, 『운문』 103호. 청도: 운문승가대. pp. 6-9.
- 鹽入良道(1959). 「懺法の成立と智顛の立場」, 『印度學佛教學研究』, 17卷 2號(通卷 14號),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pp. 45-55.

# A Study on the practice system of Jabidoryangchambeop(慈悲道場懺法)

-Focused on Jabidoryangchambeop-jiphae(慈悲道場懺法集解)

Kim, Jong-keun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The system of *Jabi-doryang-chambeop* 『慈悲道場懺法』 is composed of 3 parts along with the three category theory (三周說) of the Lotus-sutra, which divides the practitioner into the high-minded, the middle minded, and the low level. Each of the 3 parts has the system of the ritual of the Buddhist repentance, which is composed of 5 parts called the five kinds of contrition (五悔) which, in fact, mean the Buddhist repentance themselves.

So when the practitioner practices *Jabi-doryang-chambeop*, *hebe* comes practiced in the two kinds of repentance, namely, the rational repentance (理懺) and the repentance by means of prayer chanting or reciting the sutra (事懺) from the practice for the high minded level to the practice for the low minded level along with the system of *Jabi-doryang-chambeop*. The true aim of the practice for repentance is not to purify the emotions imply but to achieve a better personality by the integrated practice of

the five kinds of contrition. In this point, it would be interesting to compare the conception of the repentance of Buddhism and Christianity. And we can find that the compassion ate meditation is related with the belief to Maitreya, and the practice of full bowing with five parts of the body(五體投地) is related with the belief to 35 buddhas and 53 buddhas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practice system of *Jabi-doryang-chambeop*.

## Key Word

Jabi-doryang-chambeop(慈悲道場懺法),

Jabi-doryang- chambeop-jiphae (慈悲道場懺法集解),

The Buddhist ritual for repentance(懺法),

The Buddhist repentant(懺悔), Compassionate meditation(慈悲觀),

Full bowing with five parts of the body(五體投地)

✎ 투고일자 2012.10.29 | 심사일자 2012.12.2 | 게재확정일자 2012.12.13